

# “소속사 나가려하면 약점 잡아 목숨줄 흔들어”

일각선 “폭로할 내용 있다” 의문 누리꾼들도 “퇴출” “반대” 시각차 전여친 A씨 “2차 가해 법적대응”



연기자 김선호가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뒤 20일 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는 찾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최근작 tvN '갯마을 차차차'에 출연한 김선호 모습. 사진제공 | tvN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한 파문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연예계는 물론 팬들까지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20일 김선호가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사과하고, A씨가 관련 주장을 담은 온라인 글을 삭제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21일 또 다른 주장들이 오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

김선호와 A씨의 지인이라는 한 누리꾼은 이날 SNS에서 “25일 오로지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속사 나가려다 파본 연예인들”이라고 언급하며 “계약 기간에는 리스크 관리해 준답시고 불리한 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의는 해달라고 하다가 소속사 나가려고 하면 그걸로 발목 잡고 목숨 줄 흔들고 못 가질 거면 그냥 이 바닥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듯하지만, 실제 “폭로”할 내용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 아니냐 “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또 김선호의 팬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이 “김선호가 결혼 전제로 연예 중인 현 여친”에 대해 “전 여친이 질투해 (사생활 의혹을) 폭로”했다며 이를 온라인상에 퍼뜨려야 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은 SNS 메시지 단체대화방 사진이 이날 등장했다. “일단 여론을 뒤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글도 포함돼 사실이라면 ‘여론 조작’을 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태는 방송사의 시청자권익센터 시청자청원 게시판에서도 언급됐다. 일부 누리꾼은 김선호의 KBS 2TV ‘1박2일’ 중도 하차를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도덕적 비판의 소지가 있었지만 연인 사이에 겪은 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김선호의 프로그램 하차를 주장하는 또 다른 누리꾼들의 시각과 맞바딤치는 형국이다.

앞서 A씨의 직업 등 신상이 온라인 매체 보도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날 “A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했다. 김선호의 입장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의 시각과 대립하는 양상을 빚어낸 셈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관련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A씨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는 “현재 A씨가 이번 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SNS 협박 메시지는 물론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신변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신상이 공개돼 퍼지고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유포 및 보도되고 있다”면서 “A씨가 이에 대처할 듯하다”고 덧붙여 법적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한 사태가 이처럼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연예계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연예관계자는 “사태가 확대되거나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진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팬들까지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업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연예관계자는 “누리꾼의 주장은 모종의 상황이 현재 논란을 불렀음을 암시

## 연예뉴스 HO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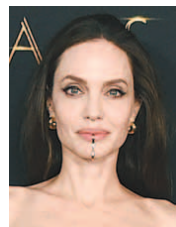
### BTS 대통령특사 활동비 17억...정부 7억 부담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의 대통령 특사 활동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이들이 쓴 비용이 약 17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억원을 정부가 방탄소년단 측에 지급했고, 나머지는 소속사가 부담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소년단의 순방 비용 약 17억원 가운데 해외문화홍보원이 소속사에 지급한 돈은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7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소속사가 부담했다.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 졸리, 확진자 접촉...행사참석한 마동석 음성



안젤라 졸리

영화 ‘이터널스’의 안젤라 졸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가운데 함께 주연해 미국 월드프리미어 행사에 참여한 마동석도 관련 진단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LA에서 열린 ‘이터널스’ 월드프리미어 행사에 참여한 마동석은 21일 현재 음성 판정 이후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안젤라 졸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마동석을 비롯한 연출자 클로이 자오 감독 등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 영화는 11월3일 개봉한다.

### 청년 전태일 그린 애니 ‘태일이’ 12월 공개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가 12월1일 관객을 만난다. ‘태일이’는 1970년 서울 청계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 전태일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항거한 이야기이다. 최근 막을 내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애니메이션에는 장동윤, 염혜란, 진선규, 권해효, 박철민, 태인호 등이 목소리 연기로 참여했다. 한국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인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제작사 명필름의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편집 | 인도영·유진한 기자

## CJ ENM, SM 인수 초읽기

이수만 총괄 PD 지분 6000억에 인수 11월 안에 계약·실사 등 절차 마무리 CJ, 글로벌 사업 확장 본격화 할 듯

CJ ENM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연예계에 따르면 CJ ENM은 국내 최대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관련 사항을 몰입 협의 중이다. 이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8.73%(3231억원)을 최소 6000여억원에 인수하고, 11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가 성사된다면 CJ ENM은 슈퍼주니어, 엑소, NC T127, 에스파 등 대표적인 케이(K)팝 아티스트를 품에 안는 것은 물론 더욱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CJ ENM을 비롯해 카카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의 모회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등이 SM 인수전에 나섰다. 하지만 카카오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손을 떼는 동시에 CJ ENM이 더욱 유력한 인수자로 급부상했다.

이날 연예계 한 관계자는 “CJ ENM은 엠넷을 중심으로 한 음악방송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영역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SM이 보유한 스타들과 음악 콘텐츠 등을 내세운다면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데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보다는 회사의 미래성장과 케이팝 중심 음악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지분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1976년 데뷔해 ‘행복’ ‘한송이 꿈’ 등 노래로 인기를 모은 가수 출신인 이수만 프로듀서는 1989년 SM을 설립해 H.O.



CJ ENM이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왼쪽 사진)의 보유 지분을 인수할 전망이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스포츠동아DB



T와 S.E.S로 대표되는 케이팝 1세대 아이돌 스타를 배출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기획사로 성장시킨 경험의 바탕 위에서 향후 더욱 안정적인 경영 시스템 아래 음악 기획·사업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CJ ENM도 이 같은 방향에서 인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CJ ENM의 내부 사정에 밝

은 한 관계자는 “양측의 협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만간 최종사안하지 않겠느냐”면서 “계약과 실사 등 나머지 절차를 늦어도 11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CJ ENM의 음악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등 다양한 사업 조정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귀띔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대나무 뿌리 지팡이 호신검

담양에서 대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국내 기술로 산화처리 가공 하였으며 칼날은 집쇠 칼날이며 정성껏 신명을 다하여 제작 하였습니다



## 象敢(상감) 장군도

통구리로 칼집 제작 하여 상감처리 되었으며 표면 조각 상감 하였습니다. 칼날은 장인(匠人)의 기술로 집쇠도로 제작 하였습니다.



상감이란? 금속 도자기 등의 절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위에 금, 은, 자개 등 다른 재료로 꾸미는 장식하는 기술

그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작품

전장 110cm 칼날 72cm 중량 1kg300g

소장용 / 선물용 大東刀劍 02-434-3303

## 어르신용 전기자전거

넘치는힘!! 언덕길도 편하게~~



30% 할인!!! 2021년 최신형 월 115,000원 17년 전통의 기술력 노하우 씨YS출력스

직장인, 노약자, 주부 등 교통수단 대 인기!!

- ▶ 고성능 리튬배터리 장착!
- ▶ 가볍고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차대
- ▶ 강력한 파워 어시스트 기능
- ▶ 최고의 기술 최고의 성능
- ▶ 최고급 사양 채택
- ▶ 한달 전기 요금 3,000원이면 OK

주야 24시간 상담현영 (전국 대리점 모집) 02-579-3300

## 적재함이 있는 삼륜전동스쿠터

- 디자인
- 성능
- 안전성
- 경제성
- 누구에게도 굿



2021년 최신형 한달전기요금 5,000원 월 190,000원

- ▶ 전·후진이 자유롭다
- ▶ 기름이 한 방울도 들지 않는다
- ▶ 가정에서 220V 전기로 배터리 충전

높이가 낮아 거동이 불편하신분들도 사용이 용이함 어르신들 눈발에 나가실때 / 어르신 주부님들 시장보실때 / 좁은 농로길 안성맞춤 주)YS출력스 070-7725-7677 주야 24시간 상담현영 (전국 대리점 모집)